

로봇/방산/조선

AI로보틱스/방산/조선/운송 양승윤
6139 / syang0901@eugenefn.com

최신 섹터 동향 정리(2026년 7월)

“ 7월의 위클리·데일리 발간 자료를 토대로 섹터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.

“ 7월 섹터별 합산 시가총액은 로봇 -20%, 조선 -11%, 방산 -11%를 기록. 절대 수익률은 부진했으나 코스피(-22%)·코스닥(-22%) 대비로는 아웃퍼폼. 8월은 중국 유니트리 상장, 중국 WRC(8/19), 현대차 CID(8/26) 등 로봇 이벤트가 집중. 조선·방산은 2Q26 실적 발표 이후 후속 수주와 사업 구체화를 대기 중이며, 계절적으로 8월 이후 방산 해외수주 가시성 확대 전망.

“ [로봇] 한국 로봇 사업화 본격 확대

“ 7월 로봇 산업은 국내 정부 정책 강화(정부 주도 구매 등)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이 연구개발에서 조직화·양산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으로 본격 전환되며 기대감 확대. 삼성은 RX사업추진실과 구미 생산라인, LG는 CEO 직속 조직과 액추에이터·학습 인프라, 현대차는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% 확보를 추진. 해외에서는 Figure·Apptronik·테슬라의 현장 투입 및 양산 준비와 중국의 생산·IPO 경쟁이 동시 가속화. 향후 고객사·수주·양산 일정이 확인되는 기업 중심으로 차별화될 전망.

“ [방산] 미국·유럽 증산 본격화, 견조한 방산 수요 재확인

“ NATO 재무장이 국방비 증액에서 실제 조달·증산·현지생산으로 전환됨. 한국은 NATO와 조달 기본협정 협상을 개시. 미국·유럽에서는 GMLRS·PAC-3·ATACMS·화약·장갑차 생산능력 확대가 진행되고 있음. 생산 확대 유도를 위한 장기 계약 체결 증가 중. 최근 무기 트렌드는 저가·대량생산형·무인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. 국내에서는 폴란드형 K-2 및 K-9 EC2 출하와 폴란드 천무 유도탄 공장 착공, 폴란드 K-2 EC3 협상 구체화, 스페인 K-9 현지 생산 협의가 구체화됐으며 페루·필리핀·말레이시아로 수출 파이프라인 확대. 러시아·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무기 수요를 지지하는 가운데, 향후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제 수주 여부 주가에 중요한 동인이 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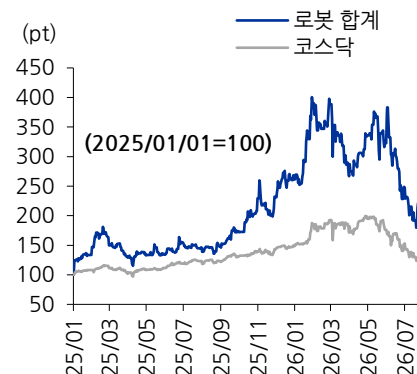
“ [조선] MASGA 실행 단계 진입

“ 고부가 상선 수주 호조와 한미 조선협력의 실행 단계 진입. 한미 조선협력 센터 출범과 함께 미국 조선소 현대화·공동 R&D·MRO·무인상선정 협력이 구체화됐지만, 여전히 한국 조선소의 미국 함정 직접 건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. 미국 정부가 국내 조선사에 전투함·급유함 건조 가능성을 직접 타진한 점은 긍정적. 그 외 함정 분야에서는 캐나다 잠수함을 TKMS에 내줬지만 태국·페루·필리핀·사우디·모로코 등 다수의 함정 파이프라인 가동 중. 중국의 상선 수주 점유율 확대에 대응해 국내 고부가 선박과 해외 생산 거점을 병행하는 전략이 강화될 전망.

업종투자 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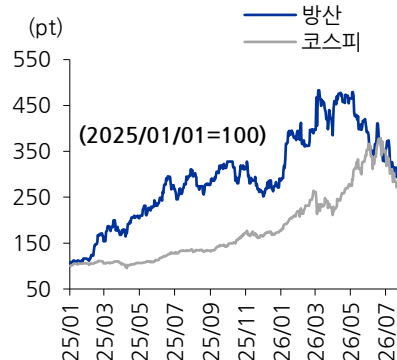
OVERWEIGHT

로봇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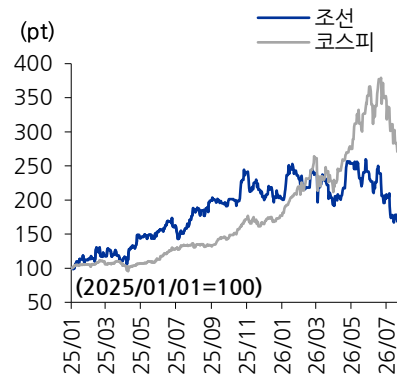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방산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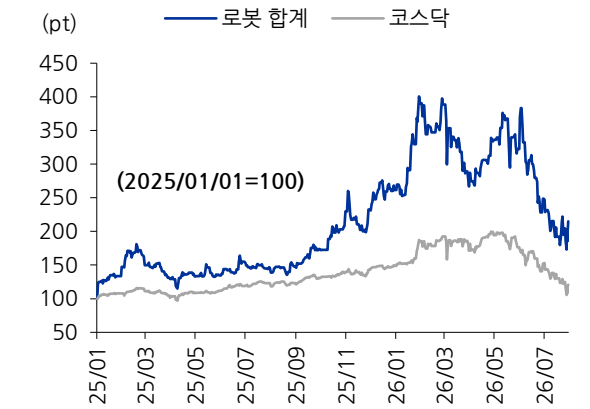
조선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



자료: Quantwise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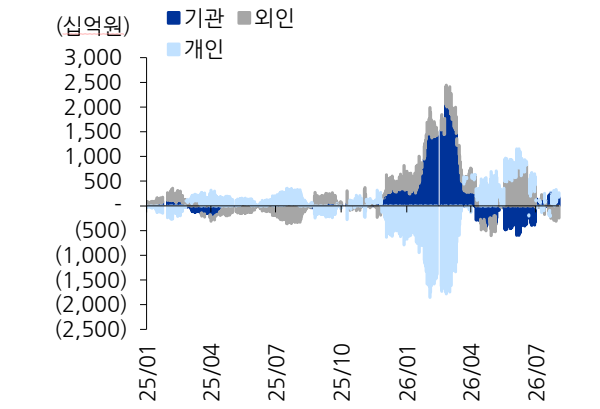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로봇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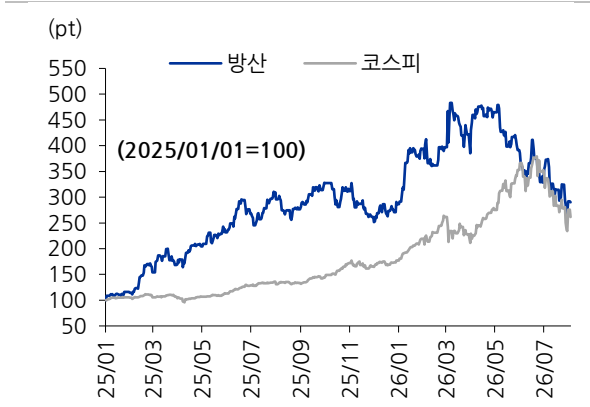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동향(로봇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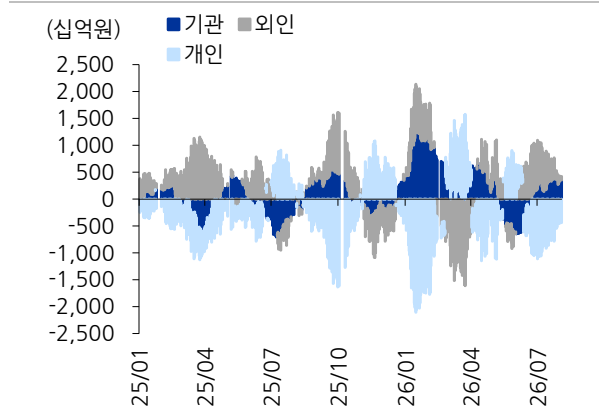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방산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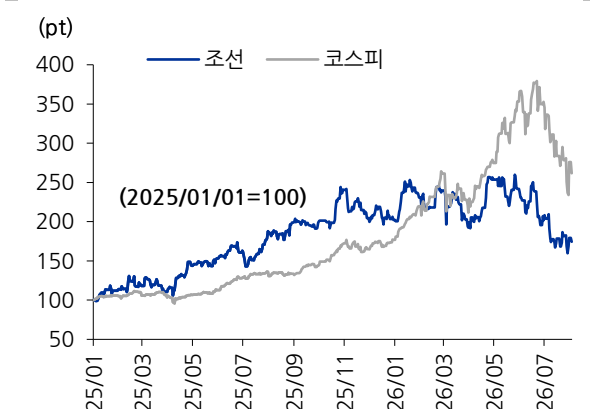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동향(방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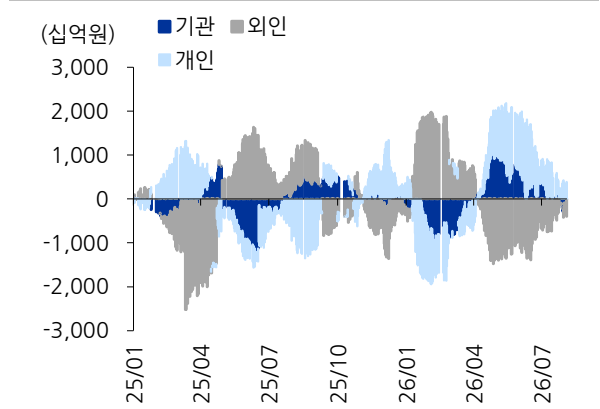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vise, 유진투자증권

조선 업종 시가총액 지수 추이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동향(조선)

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7월 로봇 주요 이슈

주요 이슈	상세	임플리케이션
대기업 로봇 사업 실행 단계 진입	- 삼성전자: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 신설 - 삼성전자: 구미 생산 파일럿 라인-데이터 팩토리 구축 - 삼성전자: 제조-물류 우선 적용 후 B2C 확장, M&A 검토 - 현대차: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% 확보 - 현대차: 엔비디아 공동 플랫폼, 아틀라스 외부 고객 실증 추진 - LG전자: 액추에이터 초도 생산 및 하반기 수주 활동 개시 - LG CNS: 휴머노이드 학습 인프라 1,897억원 계약	- 대기업의 로봇 사업화 본격 추진 - 로봇 생산-데이터-고객 확보 역량 강화 - 자사 공장을 초기 수요처이자 로봇 학습장으로 활용 - 향후 생산 CAPA, 데이터 축적량, 수주 여부 추적 필요
미국의 중국산 로봇 규제 본격화	7월 22일 GUARD Act 관련 하원 청문회 개최 - 하원 통과 NDAA에 중국산 로봇 금지 필요성 검토 조항 반영 7월 28일 FCC,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첨단 로봇 장비 승인 제한 발표 - 휴머노이드·4족보행·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등이 규제 대상 - 기존 승인 제품보다 신규 장비 승인을 우선 제한 - 중국 상무부, 미국 조치 철회 요구 및 보복 가능성 경고	- 연방조달에서 민간시장 장비 수입으로 규제 확대 전망 - 중국산·비중국산 공급망 분리 본격화 - 향후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확대 가능성 - 한국 업체에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체 공급 기회
정부 로봇 정책 R&D에서 수요 창출 ·양산 지원으로 전환	6월 29일 AI 로봇 '3M 전략' 발표: M.AX·Master-Mass Production - AI 로봇 전문기업 30개 이상 육성 - 글로벌 휴머노이드 점유율 1%~20% 목표 - 교육·국방·재난대응 분야 정부 선도 구매 방침 7월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 운영 및 연구용 AI 로봇 구매 확대 - 민간 실증·구매 보조예산 확대 방침 - 경산 자동차부품 제조 AI 로봇 확산거점 구축	- 기술개발 지원 → 정부 주도 구매 → 지역 양산거점 구축으로 정책 발전 중 - 정부가 초기 고객 역할을 맡아 양산투자를 유도 - 향후 공개되는 27년 예산 세부 주목
미국 휴머노이드 생산 및 실증 확대	- 테슬라: Model S-X 라인 절거 후 옵티머스 전용라인 구축 - 테슬라: 2Q 실적발표에서 옵티머스 생산라인 구축 중이라고 언급 - Figure 03: BMW 공장에서 물류·부품 시퀀싱 작업 수행 - Appteronik: Apollo 2 학습용 'Robot Park' 데이터 수집시설 개소 - 보스턴다이나믹스: 미국 로봇·AI센터에 1억달러 투자 - 보스턴다이나믹스: 대규모 상업화 및 외부 고객 투입 계획 제시	미국 생산라인-데이터 팩토리 구축 집중
액추에이터·핸드·센서 등 핵심부품 양산 확대	- 삼현: 5년간 1,000억원 투자, 액추에이터 '엑슬론' 공개 - 삼현: 2027년 1분기 액추에이터 양산, 로봇 손 개발 추진 - 에스피지: SDD 액추에이터 9월 양산 예정 - 해성어로보틱스: 감속기 양산에 100억원 투자 - LG이노텍·TDK: 촉각센서 공동개발 추진 - HIL만도: 로봇 액추에이터를 신규 성장축으로 제시 - 엔젤로로보틱스·테슬로·KNR: 액추에이터 및 로봇 손 공개	- 샘플 공급 → 부품 양산 매출 기대 - 고객 사양에 맞춘 모듈형 공급 역량 중요
피지컬 AI 데이터 확보 경쟁으로 확장	- 삼성전자: 구미 데이터 팩토리 구축 - LG그룹: 휴머노이드 학습 인프라 대규모 투자 - 씨메스로보틱스: 하남 로봇 데이터센터 확대 - 디든로보틱스·무빈: 학습 데이터셋 공동 구축 - SKT: 로봇 AI 학습데이터 국제표준화 및 스타트업 8개사 협력 - 두산로보틱스·뉴로메카·NC AI: 피지컬 AI 협력 확대 - 엔비디아·AMD·구글: 로봇용 연산 플랫폼과 모델 공개	-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피지컬 AI 데이터 확보 움직임 - 데이터 수집량보다 작업 종류·성공률·재사용성이 핵심
실증에서 공급·매출 발생 단계로 전환	- 레인보우로보틱스: 토요타형 로봇 공급 2년 만에 5배 증가 - 씨메스: 25억원 규모 자동차 설비 공급계약 - 두산로보틱스: 2Q 매출 177억원, +290%YoY - 두산로보틱스: 현대차에 협동로봇 추가 공급 - 뉴로메카: 삼성물산과 피지컬 AI 빌딩 사업 추진 - 아틀라스: 그룹 공장 투입 이후 외부 고객사 실증 추진	휴머노이드보다 협동로봇·물류 분야의 매출화가 선행되고 있음
생산설비 투자와 자본시장 조달 확대	- 레인보우로보틱스: 세종 생산·연구거점 준공 - 본시스템즈: 구동모듈 양산 공장 부지 확보 - 뉴로메카: 유상증자 축소에도 800억원 신공장 투자 추진 - 해성어로보틱스: 감속기 양산설비 투자 - 테슬로·빅웨이브·HD현대로보틱스: IPO 추진 - 일부 기업: 유상증자 청약 부진·상장심사 철회 발생	연구개발에서 '설비투자(=양산)' 단계로 진입
중국 휴머노이드의 양산·상장 가속	- 애지봇: 휴머노이드 누적 생산 1만5,000대 - 유니트리: IPO 추진 및 상장 후 총 3만대 CAPA 계획 - 림엑스·두봇: 프리 IPO 투자 및 상장 추진 - 샤오핑: 월 1,000대 이상 생산 목표 제시 - 애지봇: 자사 로봇에 중국산 시칩 도입 - 중국 휴머노이드 모델 400종 돌파	중국이 가격·생산량·개발 속도에서 선행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7월 방산 주요 이슈

주요 이슈	상세	임플리케이션
NATO 조달 본격화	- NATO, 수백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예고 - 한국-NATO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및 NATO 표준 공유 추진	국방비 증액이 공동 조달과 장기 수요 제시로 전환
방공·요격탄 수요 확대	- 벨기에-네덜란드, 약 35억달러 규모 공동 방공망 구축 추진 - 그리스, 약 6조원 규모 이스라엘 방공체계 도입 결정 - 유럽-우크라이나, 러시아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 연합 구성 - PAC-3 ACE 공개 및 미 육군의 PAC-2 GEM-T 신규 생산분 주문 - PAC-3 MSE, 7년간 최대 586억달러 규모 장기계약 체결 - PAC-3 생산능력 3배, THAAD 4배 확대 방향 -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겹치며 미국 패트리엇 재고 부족 심화	방공 수요가 신규 체계 도입에서 요격탄 재고 보충과 저비용 요격수단 확보로 확장되고 있음
저가·대량생산형 무기체계 확대	- 룩히드마틴 저가형 PAC-3 ACE 제시 - 미국 3억원대 저가 미사일 대량생산 추진	성능보다 단가·생산량 중요성 상승
글로벌 방산 증설	- 독일, 유럽 내 ATACMS 생산 추진 - 안두랄-PGZ, 폴란드 바라쿠다 미사일 생산 추진 및 2027년 7,000발 생산 목표 제시 - 폴란드 등 5개국: 유럽 내 패트리엇 경비거점 구축 - KNDS, 독일 카셀공장 생산능력 확장 - 라인메탈, 독일 아사우 화학공장 확장 착수 - 보잉, PAC-3 유도장치 생산량 30% 확대 추진 - 미국 155mm 포탄 생산 차질 및 NATO 화약 원료 부족 지속	미국산 무기 도입과 유럽 현지 생산이 병행되는 방향
K-방산 수출 현지화	- 한화-WB 합작법인, 폴란드 천무 유도미사일 공장 착공 - 스페인 K9 사업에서 100% 현지생산과 SAPA 번속기 적용이 쟁점으로 부상 - KAI, 영국 훈련기 사업에 현지생산·현지 파트너십 전략 제시 - K2, K9 EC2 초도물량 출하	현지생산·부품조달·MRO·기술이전이 수주 경쟁의 기본조건으로 정착
K-방산 수출 파이프라인	- 폴란드 K2 3차 실행계약 협상 구체화 - 페루 K2-K808 반입 및 전차·장갑차 실행계약 협상 진행 - 필리핀 K9 도입 검토 및 KF-21 후보 기종 평가 - 태국 공군의 KF-21 도입 가능성 제기 - 말레이시아 해상 대함미사일 및 약 1조원 규모 방공사업 경쟁 - UAE와 무인수상정 해검 수출 협상 진행	자상체계 중심에서 전투기·방공·유도무기·무인체계로 파이프라인 확대 중
지정학 리스크 확대	- 미국, 러시아의 폴란드·발트 지역 무력도발 가능성 경고 - NATO,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- 미국의 유럽 주둔군 감축 검토 및 에스토니아 병력 철수 보도 7월 30일 러시아 Kh-101 순항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추락 -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재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작전 지속	러시아의 NATO 동부전선 위협과 중동 분쟁이 동시에 확대되며 유럽 재무장과 미국 재고 부족 심화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7월 조선 주요 이슈

주요 이슈	상세	임플리케이션
고부가 상선 수주 지속	- HD현대중공업 LNGC-FSRU 각 1척, MR PC 6척 - HD현대상호 VLAC 3척 수주 - 삼성중공업 수에즈막스 2척 수주 - 양밍은 한화오선에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(12억달러) 발주 소식	가스선·탱커·컨테이너선으로 수주가 다변화되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 가시화
해양플랜트-FLNG 파이프라인	- Delfin LNG 2호선이 연내 FID를 목표 - UAE ADNOC·Total의 움 사이프 가스전 개발 FID 진행 - HD현대의 Tri-on 부유식 설비는 2027년 출항 목표	가스전 FID와 FLNG 프로젝트가 후속 해양설비 발주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중
KDDX 우선협상자 선정	-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이의신청을 기각 - 한화오선이 7월 2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시	한화오선이 KDDX 상설설계·선도함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, 본계약도 체결(8월)
한미 조선협력 실행 단계 진입	7월 23일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(KUSPC) 개소 - 공급망·인력·기술 분야 15건의 MOU와 5년간 1,200억원 공동 R&D 추진 - HD한국조선해양은 지멘스와 AI 기반 미래 조선소 구축, 조선소 현대화 지원 - 한화오선은 미국 합정 공동개발 추진 - 삼성중공업은 무인수상정·LNG 병커링 선박 공동개발 추진 - 필리핀조선소는 약 3조원 규모 미사일 계속선 2척 수주 기사화	한미 조선협력이 선안·협의 수준에서 공동 R&D, 미국 조선소 현대화 및 공동개발 단계로 이동
미국 합정 해외건설의 법·정책 충돌	- 미국 정부가 국내 조선사에 전투함·급유함 건조 가능성 타진 - 대통령실은 미국이 한국 내 군함 건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 - 반면 하원 통과 NDAA에는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 포함 - 하원 공청회와 세출위 차원에서는 한·일 조선업 활용 필요성 지속 제기	행정부는 한국 건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하원은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을 유지 중
합정 수출 파이프라인 다변화	-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독일 TKMS가 선정되며 한화오선 수주 불발 - 한화오선은 모로코 장보고-III, 태국 호위함 사업 추진 - HD현대중공업은 말레이시아 다목적함, 우루과이 합정, 페루 잠수함 사업 진행 - 페루 잠수함은 연말 상설설계·건조계약 목표 - 필리핀 후속 호위함 14척 이상 및 기존 호위함 2척 성능개량 추진 - 사우디 호위함 제안은 현지화 범위를 엔진까지 확대	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실패했지만 중동·동남아·남미에서 잠수함·호위함 사업이 동시 진행되고 있음
FDC-AI 조선소 신사업	- 삼성중공업 미국 휴스턴 FDC 프로젝트와 28년 2분기 서비스 개시 목표 - HD한국조선해양 슈나이더일렉트릭과 FDC 인프라 공동개발 착수	FDC 사업화 구체화
해외 생산거점 사업화	- HD현대 필리핀조선소가 7월 28일 첫 선박을 진수 - HD현대중공업·인도 코친조선소 합작 블록공장 인도 정부 원칙적 승인 확보 - HD현대 모로코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과 미국 키위과의 공동건조도 추진	해외 조선소 거점 확대 구체화
중국의 수주·선종 경쟁력 확대	- 중국 조선업이 상반기 글로벌 수주량의 72%를 차지 - 머스크·CMA-CGM이 중국 조선소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검토 - ADNOC는 9억달러 규모 LNGC 4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	중국의 물량 우위가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고부가 선종으로 확산, 경쟁 심화

자료: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

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

당사 투자의견 비율(%)

· STRONG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	3%
· BUY(매수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	94%
· HOLD(중립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	3%
· REDUCE(매도)	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	0%

(2026.06.30 기준)